

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리스도인

창세기 24:34-36, 고린도후서 4:1-7

정윤돈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 정체성이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큰 대회가 중요한 것이, 가면 자부심을 느낀다. 나 혼자 아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 모이면 이를 수 있다. 그 현장에 참여 하셔서, 하나님께서 천 년의 응답, 언약을 붙잡는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서론 : 고린도후서의 의의 -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신약의 서신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모델이요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읽다 보면, 특히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경은 참 완벽한 것 같다. 고린도교회의 갱신되지 않은 어떤 성도들이, 바울에게 책망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바울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두고 '당신이 우리 목회자가 아니니까 사례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 하면서까지 시비를 건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보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 쓴 내용이다. 어찌보면 공색해 보일 정도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나는 열두 제자도 못 가 본 천국에까지 갔다온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로 말했다. 화가 나서 말한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 하면서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겪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수고를 했으며, 매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고난을 겪었다." 이것은 '나는 이렇게 진실하게, 동기 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하는 의미이다. 여러분, 전도자가 공색해지기 전에 먼저 깨달으시기 바란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 영접이 쉽게 나오는가? 아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 중에서 교회 오는 일이 쉬운가? 그렇지도 않다. 응답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이 지속이 잘 되는가? 그것도 힘들다. 여러분이 주일성수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또 헌금은 얼마나 많은가. 예배는 또 얼마나 많은가. 구역예배 오라고 해서 갔더니 또 헌금을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찬양대를 하라고 한다. 갈수록 태산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투표를 하자고 한다. 장로, 권사 하라는 것이다. 전에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앉아있는 것으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점심식사까지 하고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설거지까지 하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설거지를 안 한다. 식당에서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한다. (웃음) 인간적인 갈등이 시작된다. 장로님이 되었다. 목사님과 가까이하게 된다.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있어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과거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땡 하고 도망갈 때가 그렇다. (웃음) 지금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보는 것이다. 말도 유창하지 않고 메시지도 너무 길고 그러니까, 또 누군가 옆에서 '야, 바울은 사실 열두 사도도 아니잖아?' 하면서 찌르기 시작한다.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후

서를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영접으로, 주일성수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며, 흑암과의 영적 전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고린도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안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의 재산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안다. 우리교회도 50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아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고린도교회는 역사가 짧다. 그러니까 '예'보다 '아니오'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는 예만 되고 아니오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고린도교회는 역사가 짧아서 이런 문제가 많았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두고 훈계를 한다.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디모테를 보내서 훈계를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속상하니까 또 편지를 보냈는데,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는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 그런 훈계 속에서, 비로소 고린도교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된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다. 그 내용의 3분의 2는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다. 사실 목회자는 무시당해도 좋고 욕 먹어도 좋고 오해받아도 좋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양들을 살리는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한 것이다. 만약 징계와 꾸지람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킨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이다. 기분이 나쁜 이야기 속에도 분명히 교훈이 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받고 저 말씀은 거부하면 안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 낮아짐으로, 말씀을 100% 받는 사람이다. 고린도교회에는 엄청난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과 전도자들의 가르침과 훈계 속에 결국 변화되고 치유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설교가 길어도 감사하고, 짧아도 덜 감사하면 좋겠다. (웃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1.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

-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한 고린도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데?
- (1) 창세기 3장의 울무에 매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린도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에게 대적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 빠진 것이다. 목회자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 (2) 창세기 6장, 네피림에 틀에 갇힌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고린도에는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거기에 3천 명의 창기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다. 우상으로 인한 타락문화가 번성했고, 이것이 교회에까지 들어왔다.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자랑하기까지 했다. 똑똑한 척, 아는 척을 했다. 나의 정욕, 나의 기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것이 네피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네피림 체질이 되어서 그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 (3) 결국 창세기 11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분열의 징계를 받았지 않다. 고린도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다. 분열되고 말았다. 바울과, 아볼로와, 케바과,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다. 예언을 주장하는 자, 방언을 주장하는 자로 나뉘어졌다. 교리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쟁과리가 될 뿐'이라고 한 것이다. 깨뜨리는 신학은 의미가 없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교리, 그 제도, 그 순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의미가 없다.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2.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바울의 심한 훈계를 받고 빠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변화가 된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그러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결국 어떻게 변했겠는가?

(1)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라는 성도들로 변했다. 바울은 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준 것이다. 고린도후서 3:3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 쓰임받으시기 바란다.

(2)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변화되어 이전 것을 모두 버리고 새 것이 되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5:17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보면, 바울의 간곡한 마음이 느껴질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새 것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3) 고린도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 거액의 헌금을 할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을 거의 다 깨달은 것이다. "너희가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아멘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약속한 헌금을 해라." 이것이 고린도후서라고 할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다. '마게도냐 교회가 너희가 1년 전에 작정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자기들도 헌금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막상 너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으면 마게도냐 교회가 실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라' 하는 말을 했다. 고린도후서 8:20에 보니까, 그냥 헌금이 아니라 거액의 연보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부자가 많았던 고린도교회가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기를 바랐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헌금을 하게 된 것이다.

결론 :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미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한다.

(1) 사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사탄은 처음부터 개인과 교회를 분

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였다. 지금도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 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심삼일이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오셔야 한다. 밥을 매일 먹으니까, 기도수첩도 매일 해야 한다. 한 번 씩 목욕탕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화요일에도 가고, 새가족수련회도 가고, 램뉘트대회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2)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홀통해서가 아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것이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별 것 아닌 그릇인데, 그 그릇까지 보배가 되어 버렸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다. 318명 가병을 데리고 전쟁에 이길 만큼 승리하게 하셨다. 왕들을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한다. 어릴 때의 이야기다. 우리 아버지가 도자기를 하나 들고 오셨다. 별 것 아닌 그릇 같은데, 신안앞바다에서 발굴한 보물이라는 것이다. 이게 그 당시에 수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응답받았다 하면서 기뻐하셨다. 누나도 엄청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느낌이 안 좋았다. 아버지가, "이걸 일본에 몰래 갖다 팔면 틀림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나라의 보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나라에 돌려주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못 보게 될 거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망스러웠는데,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재 빼돌려서 돈 벌던 사람은 나중에 잡혔다. (웃음) 사실 이 도자기는 그 시대에는 그냥 밥그릇이었다. 그랬던 것이 세월 지나니까 보배가 된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점점 더 가치있는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교회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갱신해 나가면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후대는 천 년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깨닫고 자신을 약간씩 갱신해가면 된다. 그 방법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목상하면서 한 가지씩 개인화시켜나가는 것이다.

변화된 고린도교회를 두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한다. 고린도후서 13:11의 축복과 응답을 다 함께 받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고린도교회가 연약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훈계를 가뻐이 여기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응답을 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 능력, 인격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며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